

HCI@KOREA 활동 보고서

2016 ~ 2017



후원



1. 연구회 소개

HCI@KAIST 연구회는 KAIST 캠퍼스 전역에서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새로운 시도이다. HCI@KAIST는 역동적이고 협업적인 HCI 연구 커뮤니티를 창출하기 위해 School of Computing의 미래 계획위원회에서 조직했다. 현재 KAIST의 4 개 학과에서 18 개 연구실이 참여하고 있다.

KAIST는 전세계 HCI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입지를 자랑한다. 세계적인 HCI 학회 중 하나인 CHI에 발표된 논문 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세계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캠퍼스에서, HCI 커뮤니티 활동은 비교적 적다. School of Computing의 미래 계획위원회는 적극적인 HCI 커뮤니티가 KAIST를 HCI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매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깨달았다. 따라서 몇 달간의 계획을 수립 이후, HCI @ KAIST는 2016 년 10 월 일련의 세미나 형태로 계획된 활동 중 첫 번째 활동을 시작으로 발족했다.

- 홈페이지: <http://hci.kaist.ac.kr/>
- 후원: 카이스트 전산학부, 골프존 홀딩즈
- 참여 연구실 (교수): 김주호, 맹성현, 박진아, 송준화, 오혜연, 이기혁, 이동만, 이성주, 조성호 (이상 전산학부), 남택진, 배석형, 이우훈, 임윤경, Andrea Bianchi, Daniel Saakes (이상 산업디자인학과), 이의진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우운택, 이병주 (문화기술대학원)



2. 연구회 활동 요약

연구회는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연구회의 구성원들이 초청 연사를 부터 다양한 HCI 연구 또는 산업 활동에 대하여 배우는 자리를 만들었다. 총 12번의 정기 세미나가 성공리 진행되었다. 2016년 겨울에 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HCI 연구실들에서 서로의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여, 서로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겨울 워크숍을 개최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워크숍동안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등 서로의 연구에 대해 더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다. HCI 연구자들의 중심인 CHI 2017 학술대회를 맞아서 HCI@KAIST의 연구/교육 활동을 홍보하고 국제 연구자 네트워크 확대 및 연구 협력을 증진하고자 호스피탈리티 이벤트를 주최하였다. 약 180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해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여름에 CHI 2018 논문 제출을 준비하는 연구회 구성원들을 위한 발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 했다. constructive feedback를 서로 함께 주고 받는 시간이 되었다.

3. 정기 세미나

다양한 HCI 연구에 참여하는 학계 및 업계의 연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비전을 공유해서, 다른 HCI 연구 또는 산업 활동에 대하여 배우고, 나아가 세미나 청중인 HCI@KAIST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연사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본적으로 매주 수요일 N1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2016년 가을, 2017년 봄 동안 총 12번의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가을학기에는 세미나 당 평균 50명의 청중들이, 봄학기에는 평균 30명의 청중들이 참석했다.



프로그램

- [10/12, 2016] 김용관, 이재연 / UIST Preview
- [10/20, 2016] Oren Etzioni (CEO of AI2) / The Future of AI
- [10/26, 2016] Krzysztof Gajos / Design and Discrimination
- [11/9, 2016] 이병주 / How-Actually Explanations for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 [11/23, 2016] 허성국 / Enriching Mobile Touch Interaction using Normal and Tangential Forces
- [12/07, 2016] CGV Lab, WONDER Lab, U&I Lab, KIXLAB / Lab introduction session
- [12/21, 2016] 최은경 / Personal Informatics: Empowering People through Self-Tracking and Visual Data Exploration

- [5/17, 2017] 한경식 (아주대학교) / Teens are from Mars, Adults are from Venus: Modeli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Predicting Age Groups in Social Media – Case of Instagram
- [6/07, 2017] 이준환 (서울대학교) / 소셜컴퓨팅과 HRI: 사회대에서 HCI 연구하기
- [6/21, 2017] John Park (CEO, DATANADA corp.) / A Look into Hidden Layers of AI/ML Startup
- [7/19, 2017] Sun Joo Ahn (Georgia univ.) / Embodied Experiences in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s: Virtual Interactions that Influence Physical Behaviors
- [7/31, 2017] Joseph Jay William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Perpetually enhancing human learning through dynamic, personalized, collaborative experimentation
- [11/7, 2017] Piotr Mitros (the co-founding Chief Scientist of edX) / Barriers to Revolutions in Learning
- [11/10, 2017] Hyunggu Jung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 'MASTerful' Matchmaking in Service Transactions: Inferred Abilities, Needs and Interests versus Activity Histories
- [11/24, 2017] Hwajung Hong (UNIST) / Data-Driven Design for Human-Centered Healthcare
- [12/6, 2017] Young-Woo Park (UNIST) / Design of interactive objects with concrete, wood and acrylics
- [12/14, 2017] Minhyang Suh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 Design for Temporality / It Is Not All Fun and Games: Breaking News Consumption on Snapchat

4. 겨울 워크샵

겨울 워크샵은 HCI@KAIST에 소속되어 있는 KAIST의 여러 HCI 관련 연구실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만나서 서로의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조금씩 배워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 시간: 2017년 2월 2일
- 장소: N1동 102호, 103호, 102호 앞 로비공간 (포스터)
- 자원봉사: 김주호, 박준수, 박진아, 오혜연, 이기혁, 이여름, 이의진, 임윤경, 장재현
- 등록자: 84명



프로그램

	장소	Track 1	장소	Track 2
9:30 – 10:00	102	Registration		
10:00 – 10:15	102	Welcome & Poster Spotlights		
10:15 – 10:30	102	Tutorial I (Sung-Ju Lee)		
10:30 – 12:30	102	Oral Session A	103	Oral Session B

12:30 – 1:30	Hall	Lunch		
1:30 – 2:15	102	Tutorials - 허성국 on Intership - Juho Kim on Job Market		
2:15 – 3:00	Hall	Posters & Coffee Break		
3:00 – 4:00	102	Oral Session C	103	Oral Session D
4:00 – 4:15	102	Closing & Awards		

Oral Session A (좌장: 이의진)

Time	Speaker	Title
10:30 ~ 10:55	김주연	Teamwork in LoL (CHI 2016)
10:55 ~ 11:20	이종인	Reflector: Distance-Independent Private Pointing on a Reflective Screen
11:20 ~ 11:45	장민석	Mining and Analyzing Diverse Processes in Cooking Recipes
11:45 ~ 12:10	김선준	TapBoard 2
12:10 ~ 12:35	손정민	Comparison of Two Target Selection Methods for Two-Thumb Touchpad Typing

Oral Session B (좌장: 이기혁)

Time	Speaker	Title
10:30 ~ 10:55	최우혁	Exploring User Experiences of Active Workstations: A Case Study of Under Desk Elliptical Trainers
10:55 ~ 11:20	박정국	Peer assessment (CSCW 2017)
11:20 ~ 11:45	우종범	UX in DIY smart home
11:45 ~ 12:10	박형근	Case studies on non-visible information of body movement in sports.[Snowboard, Skateboard]

Oral Session C (좌장: 김주호)

Time	Speaker	Title
3:00 ~ 3:30	박천종	Don't Bother Me. I'm Socializing!": A Breakpoint-Based Smartphone Notification System
3:30 ~ 4:00	정진근	PinPad

Oral Session D (좌장: 임윤경)

Time	Speaker	Title
3:00 ~ 3:30	정영욱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Online Document Tools for Design Collaboration: The Case of Google Docs
3:30 ~ 4:00	박상근	Facilitating Pervasive Community Policing on the Road with Mobile Roadwatch

Posters

이여름	Design for Social Reinforcement in Health IT Services
제승우	tactoRing: a Skin-Drag Smart-Ring
이혜립	All4One: A Tangible Tool for Moderated Idea-Generation among Remote Users
김다정	Design Opportunities in Three Stages of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Users and Self-Tracking Devices
임유진, Paul Grau	Verbivore: Learnersourcing Vocabulary Flashcards
배문주	Designing Interactive Contents for Children
김인엽	Understanding Smartphone Usage during the University Class and Exploring Design Factors of Intervention System to Promote Concentration in Class
손우성	Tele-Handwriter: The Effect of Handwriting and Physical Medium in Text Conversation
노예경	Pet-morphic Interaction: Toward Emotionally Engaging Semi-autonomous Cars
김석열	A Unified Virtual Fixture Model for Haptic Telepresence Systems based on Streaming Point Cloud Data and Implicit Surfaces
최우혁	Exploring User Experiences of Active Workstations: A Case Study of Under Desk Elliptical Trainers

참석자 피드백

- 앞으로도 이 워크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포스터세션에 좀 더 mingling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CHI/CSCW 같은 학회 발표 이전에 다 같이 모여서 발표연습(?) 하는 기회도 비공식적으로 열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 또, HCI group 안에서도 비슷한 분야 (e.g., healthcare)를 연구 하는 HCI 연구 학생들이 모여서 연구 진행 발표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small workshop 처럼요 :-)"
- One thing I would like to mention is that the scheduled intervals seemed pretty tight.
- Lunch could be in a better environment for peop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more easily.
- Actually, I enjoyed all of them. Thank you.
- 준비해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너무나 만족스러운 워크샵이었습니다. 굳이 코멘트를 달자면, 양 세션 강의실의 크기 차이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청중이 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3호는 수용인원이 많이 적더라구요.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The poster session was quite enjoyable to meet and talk with people in different departments about their work. Also, the tutorial sessions were very interesting and helpful in sharing the experience and guidance that others have gained through their research and work.
- Poster spotlight에서 단순히 저자와 제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key image나 contribution 을 간단하게라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에도 이번처럼 유익한 투토리얼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투토리얼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꿀투토리얼이었던 것 같습니다.
- 어떤 연구는 이미 발표한 것이고, 어떤 것은 진행중인 것도 있었습니다. 연구진척도에 따라 구분해주면 더 좋을 듯합니다.
- 워크샵 전에 oral presentation 이 어떤 게 있는지만 알 수 있었는데, 튜토리얼이 있는지와 그 제목 등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
- 발표자 뿐만 아니라 oral session이나 포스터에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고 활발한 소통을 하시는 분들께 상품을 제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 really loved the tutorial session which is specifically helpful for graduate students. I think we can publish it online to benefit more people other than KAIST members to advertise HCI community in KAIST. Lastly, I recommend this event to be open to anyone as long as the participant belongs to KAIST because HCI 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so that it will be better with more diverse participants. Thanks for the great event!
- 교내 학회 중에 가장 재미있게 구성된 학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The room and the hallway were both poor lighted and heated. Maybe warm coffee should be served earlier to remedy that.
- Tutorial was good, more tutorials please! demo sessions + 전시. More than 1 day? Multi-track talk could have themes and better time management. Website + homepage with schedule

5. CHI 2017 리셉션

HCI 연구자들의 중심인 CHI 2017 학술대회에서 HCI@KAIST의 연구/교육 활동을 홍보하고 국제 연구자 네트워크 확대 및 연구 협력을 증진하고자 호스피탈리티 이벤트를 주최하였다. MIT, CMU, Stanford University를 비롯한 13개 이상의 해외 대학 HCI 연구자들과 Microsoft Research, Apple, Google 등 기업 HCI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약 180명이 참석하여 늦은 시간까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HCI@KAIST 연구회는 이번 CHI 2017 학회에서 구두 발표 7건, 포스터 발표 8건, 전시 6건의 훌륭한 실적을 거두었다.

- 시간: 2017. 5. 10. 수요일 오후 8시 ~ 11시
- 장소: 1400 Stout St, Denver, CO, USA
- 자원봉사: 김주호, 오혜연, 이기혁, 이의진, 임윤경,
- 후원: KAIST 국제협력지원사업 / 공학부 국제학술행사 개최지원사업

구 분	참 가 기 관(국명)	참 여 인 원(명)				비 고
		교수	학생	연구원 등	계	
국외기 관	MIT (미국)	2	4	2	8	
	CMU (미국)	4	6	2	12	
	Stanford (미국)	2	4	1	7	
	University of Washington (미국)	1	2		3	
	University of Colorado (미국)	2	8	2	12	
	Microsoft Research			4	4	
	Google			6	6	
	Harvard, Oxford, Indiana Univ, Michigan U, NUS, KTH, Northwestern, TU Berlin, 등	18	20	10	48	
	소 계				100	
국내기 관	카이스트	7	20		27	
	소 계				27	
합 계					127	



홍보 브로셔

CHI 2017 리셉션의 일환으로, CHI 2017에 발표된 HCI@KAIST의 연구성과를 홍보할 목적으로 브로셔를 제작했다. 제작된 홍보 브로셔는 리셉션의 초청 자료로 사용되었다. 홍보 브로셔에는 발표된 연구 성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과 함께, 리셉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CHI 2017 발표 논문 리스트

- Seungwoo Je, Brendan Rooney, Liwei Chan, Andrea Bianchi / **tactoRing: A Skin-Drag Discrete Display**
- Bokyoung Lee, Gyeol Han, Jundong Park and Daniel Saakes / **Consumer to Creator: How households buy furniture to inform design and fabrication interfaces**
- Jingun Jung, Eunhye Youn, Geehyuk Lee / **PinPad: Touchpad Interaction with Fast and High-Resolution Tactile Output**
- Auk Kim, Sungjoon Kang, Uichin Lee / **LetsPic: Supporting In-situ Collaborative Photography over a Large Physical Space**
- Sangkeun Park, Emilia-Stefania Ilincai, Jeungmin Oh, Sujin Kwon, Rabeb Mizouni, Uichin Lee / **Facilitating Pervasive Community Policing on the Road with Mobile Roadwatch**
- Park Hyung Kun, Yi Hyeon Beom, Woohun Lee / **Recording and Sharing Non-Visible Information on Body Movement while Skateboarding**

6. 여름 워크샵

CHI 2018 논문 제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발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Casual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인 연구 내용을 정리, 발표하며, 남은 두달동안 논문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constructive feedback을 모두 함께 주고받는 시간이었다.

- 시간: 2017년 7월 20일
- 장소: N1동 112호, 113호
- 자원봉사: 이성주, 이우훈, 공태식, 김환
- 등록자: 64 명

Program

Track 1

	발표자	논문 제목
10:30 – 11:00	신현규	Fico : Interruption-based Inquiry in Video Navigation to Provide Feedback to Instructor
11:00 – 11:30	박정국	Embedding interactive exercises in programming screencasts
11:30 – 12:00	정형식	Post-processing Lecture Video for Reducing Learners' Cognitive Load
12:00 – 13:30		Lunch break (@ N1-102)
13:30 – 14:00	장민석	RecipeScape: Mining and Analyzing Diverse Cooking Processes at Scale
14:00 – 14:30	원대영	Boosting up family interactions through Family-sourcing for older adult members living apart
14:30 – 15:00	이성철	Micro-NGO: An Online Social Activism Platform with a Mediator Bot
15:00 – 15:30		Coffee break (@ N1-102)
15:30 – 16:00	송석우	Caregivers' collaboration for tracking baby development
16:00 – 16:30	박상근	Campus Roadwatch

16:30 – 17:00	김다정	Learning Agent: Interaction Design for Building a Partnership between Users and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Systems
---------------	-----	--

Track 2

	발표자	논문 제목
10:30 – 11:00	이상윤	Diagnosing and Coping with Mode Errors in using a Dual-language Keyboard
11:00 – 11:30	공태식	MulFin: Enriching Touch Experience by Leveraging Multiple Fingers
11:30 – 12:00	윤은혜	Counting haptic feedbacks in wrist tilting interface
12:00 – 13:30		Lunch break (@ N1-102)
13:30 – 14:00	김한종	SketchStudio: UX Scenario Sketching Tool for Interactive Space
14:00 – 14:30	김민주	Interactive Multimodal Presentation of Mathematical Coordinates Plane
14:30 – 15:00	손우성	Tele-Handwriter: Affective Digital Text Communication Using Physical Handwriting
15:00 – 15:30		Coffee break (@ N1-102)
15:30 – 16:00	정윤우	Development of Augmented Reality Workbench for Designing Kinetic Mechanism
16:00 – 16:30	노예경	pet-morphism: a new concept of design methodology for future human-vehicle interaction
16:30 – 17:00	장준혁	Help your friend become a better presenter

후기

공태식, 전산학부 석사과정

이번 HCI@KAIST summer workshop에는 다양한 과 (전산학, 산업디자인, 산업공학, 문화기술 등)에서 HCI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교수님들은 총 열 분 정도 참석하였으며, 학생들은 100명 가까이 참석하였다. 두 트랙 모두 전 시간대에 걸쳐 비슷한 사람이 수가 참석하여, 프로그램을 잘 짰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워크샵 발표는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목적보다는,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리였다. 각 발표마다 발표 15분, 피드백 15분이 기본으로 주어졌다. 워크샵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생산적인 피드백이 오고 갔다. 교수님들께서는 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연구의 기여 포인트에 대한 조언이나, 관련 논문, 추가적인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셨다. 학생들의 참여도 아주 활발했다.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은 연구 방향에 핵심이 되는 피드백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도 피드백을 얻기 위해 워크샵에서 발표하였는데, 해당 분야의 대가인 교수님들께서 생산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 실제로 발표자들 모두 상당히 만족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트랙별 프로그램 소개, 다과, 커피, 점심 식사 등도 준비가 잘 되어있어 워크샵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학생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다양한 연구 주제에 관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피드백으로부터 남는 것이 많은 워크샵이었다.

박상근, 지식서비스공학과 박사과정

최근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폴리싱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연구가 나한테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했다. 주위에 HCI를 연구하는 친구들은 이미 내 연구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HCI 연구자들을 만나 내 연구 주제나 실험 디자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었다. 현재 목표로 하는 학회의 논문 제출 마감일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이를 반영하고 개선하여 좋은 논문을 제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 HCI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HCI 워크샵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발표자 신청을 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발표 신청자가 매우 많아서, 연구 주제에 따라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나도 HCI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 내용들을 듣고 내 견문을 넓히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동시에 2개의 세션을 다 들을 수는 없었기에 Physical interface 관련 세션은 포기하고, 내 연구 주제와 더 가깝고, 내 연구내용 발표도 포함된 behavioral analysis 관련 세션만 참석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워크샵 장소에 와있어서 깜짝 놀랐다. 두 세션 통틀어 약 10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 HCI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라고, 다들 발표도 매우 열심히 듣고 피드백도 아주 열심히 주는 것 같아서 또 한번 놀랐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발표자도 이에 대해 편하게 대답을 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이 오갔고, 이런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각 발표자의 연구내용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나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었고, 발표시간보다 질의응답시간이 더 길었을 정도로, 수많은 분들께서 내 연구에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주셨다. 심지어는 워크샵이 끝나고도 처음 만나는 학생들이 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질문 및 피드백을 주셨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단순히 내 연구 내용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 뿐만 아니라, 같은 HCI를 연구하는 학생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친분도 쌓을 수 있어서 더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훌륭한 연구내용을 들으면서, 게을렀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이번 HCI 워크샵에서 발표한 연구자들 모두가 이번에 얻은 좋은 피드백을 잘 반영하여 좋은 논문을 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 환, 산업디자인학과 박사과정

2015년 여름에 진행되었던 CHist 행사 (HCI@KAIST summer workshop의 전신)에서 발표를 한 후,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CHI 2016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 때에는 3개 학과의 5개 연구실에서 10여명의 발표자들, 그리고 약 30-40명의 참가자들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 올해에는 5개 학과에서 10여개의 연구실에서 1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였다. 발표자 또한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두 트랙으로 발표가 진행이 되었다.

2015년에 큰 도움을 받았을 때처럼, 올해에도 학생과 교수의 구분없이 발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코멘트들이 많이 있었다. 학과나 연구실과는 관련없이, 대학원과정 동안 연구자들은 많은 자리에서 자신의 진행중인 연구를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가'를 전제로 하는 자리에서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멘트를 주는 입장은 공격적이고 코멘트를 받는 입장은 방어적인 것을 많이 보았다. 다만, 유일하게 CHist (혹은 HCI@KAIST summer workshop)에서는 발표자와 청중 모두 '저 연구가 CHI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혹은 조금 더 순수하게 '저 연구가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문제에 집중한다.

다만, 예년에 비하여 행사가 일찍 개최된 점이 아쉽긴 하였다. 나 또한 하드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아 발표를 포기하였고, 주변에서도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발표를 포기한 동료들도 많았다. 내년에는 8월 10일~15일 즈음에 개최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